

알기쉬운 성형외과

<上>



질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치료의학은 모름지기 의학의 근간임에는 틀림없겠으나 근년에 와서 눈부시게 발달한의학은 치료의학에만 만족치 못하고 각종질병을 미연에 방지코저하는 예방의학이 생겨났고 이 제 2의학인 예방의학에서 진일보하여 질환으로 인하여 일단기능을 상실한 신체 각부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저 하는 기능회복의학이 시대의 요청을 받아 태어난 것과 때맞추어 성형외과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기능회복의학이 제 3의학이라면 성형외과는 확실히 제 4차의 의학 임에는 틀림없다. 의학의 근본 목적이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 있을진대 이괴로움이란 기관의 장애로 비롯되는 신체적인 괴로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생긴 기형이나 또는 본인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열등감을 자아내는 신체의 결함을 고쳐줌으로써 정신적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성형외과야 말로 기본의학 보다 더 상위에 자리 잡은 근대의학 일론지도 모를 일이다.

아픈것만을 고쳐주는것만이 의학의 전부가 아니라 이왕이면 좀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자 의학의 시계를 넓혔다고 함이 옳을것이다. 성형외과는 의모를 아름답게 해주

는 정형외과 또는 미용외과의와 토순(언챙이)이나 화상 흉터를 고쳐주는 따위의 재건외과로 나누기도 한다.

옛날같이 전신을 의복으로 감추는 시대에는 미추의 관 가름이 얼굴에 국한되어서 미용외과의 대상이란 얼굴의 점백이 따위의 색소이상, 흉터, 곰보제거, 주름살펴기, 쌍가플, 응비술에만 국한되었겠지만 아플르시대에 접어든 요사이에는 남앞에 전신을 노출시키는 흥등과 기회가 많아졌고 따라서 미용외과의 대상도 유방 생식기의 미용수술 또는 생식기부근의 식모등을 대담하게 의사에게 요구하게 된것도 결코 기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몸 전체가 얼굴화한 것 뿐이다. 지면관계상 성형외과 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귀)성형수술 외이 성형수술이란 선천적 기형의 교정 반흔기형의 교정 조직 결손부의 치환등이 속한다. 외이도협착증은 수술로서 교정할수 있고 이런형의 난청은 성형수술로서 회복이 가능하다.

곰보(두창반흔)에 대한 박피정용술은 일찍이 1905년 "그롬마이어"씨에 의하여 창시되어 금일에 와서는 구미각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용술이다. 구미에서는 특히 그곳

사람에 많은 면포반흔(여드름 자욱)에 널리 쓰여지고 있지만 한국은 면포반흔보다 먼저 쓰일 적응증은 두창반흔(곰보)이 될수있다. 곰보에서 오는 추악감의 요소를 따져 보면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로 반흔부가 건강피부보다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색조의 이조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로 필요이상의 비굴감을 환자가 가지고 있다는데있다. 함몰된 반흔도 그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치료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3개종류 즉 제1도, 제2도, 제3도로 나눌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곰보환자의 입장은 매우 가혹 상태에 있다. 대체로 빈곤한 가정에 많이 볼수있고 가정에서는 다른 아이보다 교육시키는데 인색하고 따라서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이그러진 심정에 있는 환자들은 심히 감정적이고 때로는 반발적인 횡폭한 행동을 하는수가 있어 대체로 일반에게 불량한 인상을 갖게한다. 결국 이러한 냉태가 환자로 하여금 서러움게되고 필요 이상의 마음을 얼굴에 쓰게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더욱 불쾌하고 부자연하게 느끼게 한다. 박피정용이 성과를 거두자면 이상 몇가지를 유의하여 관찰하고 개선에 노력하여야할것이다.

다음2차수술은 1차수술후 적어도 3개월이상 경과되어 수술부 피부 색조와 반응이 정상에 돌아 가고 재생피부가 완성후에 행하여야 할 것이고 제3차도 역시 동일하다.

케로이드 케로이드란 명칭은 회랍어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말로 번역하여 계발(蟹虫)이란 뜻이다. 기

록된것을 보아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병에 속하나 치료법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근년에 와서 스테로이드의 출현과 더불어 이 치료에 대한 서광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필자=미혜의원장·의박>

토막상식 ★

乳房과 처녀—비처녀

젖(乳房)을 의성기라고 한다. 의성기인 젖을 보고 감추어진 진짜 성기의 크기와 신선도를 짐 칠수 있다는 생각은 제법 그럴듯한 착상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술가의 절괘같은 추측일 뿐 과학적 추구의 결과 아님만큼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젖꼭지 모양이 핑크빛으로 약간 함몰되어 있으면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결백을 의미하고 암적색(黯赤色)을 띠우면서 유방으로부터 유두가 크게 두드러져 있으면 그것은 처녀가 아님을 의미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의학적이론은 제법 신빙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공리나 정리가 아닌만큼 틀릴때는 엄청나게 틀려 버린다.

체질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많은 여성은 아무런 성적 경험이 없어도 젖꼭지의 색은 코피빛일 수가 있으며 유방 발육을 위하여 자주 맛사지를 했거나 자위를 목적으로 유두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유두의 색깔은 절게 변할수가 있기 때문이다.